

수능 성적표 사전 유출...처벌 받을까

평가원 "상시적으로 취약점 있었던 것은 사실"

"허점 알고 조치 전혀 없었다면 직무유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에 앞서 미리 성적표를 확인한 학생들이 312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험 관리를 맡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평가원의 수능 성적관리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보완점을 살펴보기로 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을 치른 수험생 312명이 성적 공개일인 오는 4일보다 앞선 지난 1일 밤 9시56분과 2일 오전 1시32분 사이 2020학년도 수능 성적표를 미리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평가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 혼란을 야기해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수능 관리에 책임을 진 평가원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다. 교육부도 "평가원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손해배상에 더해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처벌 등 법적 처

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봤다. 임응수 변호사는 "당연히 내규에 따라 책임자 징계는 따라야 하고,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돼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다"며 "증명되는 손해에 따라 학생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날 수능 채점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성적이 유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면 서도 "상시적으로 해당 취약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서 평가원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교원 임용시험과 관련해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원은 미리 성적을 확인한 312명에 대한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성기선 평가원장은 브리핑에서 "312명의 수험생들에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평가원은 수능 성적 유출과 관련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능한 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큰 의혹이 없다면 그 부분(처벌)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믿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이 진행하는 수능 성적관리와 통지 등 프로세스(과정) 전반을 조사 또는 감사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책을 강구하겠

다"고 말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는 "평가원은 수능 관리에 있어 높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시험 관리 전반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기선 원장의 사퇴 가능성도 점쳐진다. 성기선 원장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3층서 떨어진 벽돌 맞아 1층 주인 숨져

리모델링을 하던 상가의 건물 3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1층 가게 주인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5분쯤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1층 가게 주인 A씨(66)가 가게를 나서던 중 3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 창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벽돌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 건강보조식품 공장서 화재...창고 전소

3일 오전 9시48분쯤 무안군 몽탄면 한 건강보조식품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약 167㎡ 규모의 창고를 모두 태우고 1시간1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작업자 4명이 일하고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한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아이돌 콘서트 표 싸게 판다" 학생 돈 가로채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1일부터 4월12일까지 한달여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표를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후 B군(15) 등 총 15명에게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물 사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타인의 티켓 사진을 캡처해 보여주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문자메시지 몇 통을 주고 받은 후 A씨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A씨는 "티켓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한 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아이돌 팬인 10~20대가 주를 이뤘고 학생도 다수 포함됐다.

의정부 반지하 30대 택배기사 수갑찬 변사체 발견

경기 의정부시에서 수갑을 찬 채로 숨진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1시께 의정부동의 한 반지하 내에서 A씨(34)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양손은 뒤로 수갑이 차여졌고 목을 매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손에 채워졌던 수갑은 이른바 기싸수갑으로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수갑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기사였던 A씨는 홀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수천만원 대 채무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덕길에 밀린 차와 벽 사이에 끼인 70대 사망

경기 부천시에서 70대 남성이 언덕길에 밀린 차량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46분쯤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의 주택가에서 A씨(73)가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 후미와 벽 사이에 끼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A씨의 옆에 떨어져 있던 스타렉스 차량 키를 찾아 이동시킨 뒤 A씨를 구조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상태였다.

신고자는 "지나가는 길에 차량 사고가 난 것 같아 확인해 보니 A씨가 차와 벽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가짜 권양숙'에 속아 4.5억 송금 윤장현 2심도 '유죄'

광주고법, 윤 전 광주시장 항소 기각...1심서 징역 2년

대통령 부인 사칭 사기범도 총 5년6개월 형 선고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2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씨(49·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등을 보면 1심의 판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김씨는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4억5000만원 추징금을 판결받았다. 또 자신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한편,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는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영부인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개인 재산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정당 후보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4억5000만원을 편취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증거인멸과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광주상공회의소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